

# 『家戶案』 분석을 통해 본 開化期 慶尙南道의 가옥형태와 구조\*

최 영 준\*\*

## House Type and Household Structures of South Kyongsang Provinc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Young-Jun Choe\*\*

**요약** : 1904년 大韓帝國 정부에서 간행한 『경상남도가호안』은 총31개군 가운데 11개군의 자료가 현전하는데, 이 자료는 당시 이 지방의 민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제1차자료인 가호안의 분석을 통하여 洞·面·郡別 家座의 토지등급·가옥의 규모, 가좌와 가옥의 소유관계, 草·瓦家の 분포 등을 파악한 연구이다. 가호안의 분석결과 전체 가호의 약 20%는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賃借한 가좌에 지어졌다. 또한 가옥의 90%는 방 한칸 또는 두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으므로 지역의 가옥규모는 2.75칸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100년전 경상남도의 가옥규모는 조선시대의 理想的 가옥형인 三間草屋에도 못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조건 때문에 1인당 점유공간이 2~4평방미터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수용가능한 가족의 수도 4인 내외로 한정되었다.

주요어 : 客主家, 牧場屯上, 家戶案, 家座, 量案, 主戶, 驛上, 宮房田, 挾戶, 草家, 瓦家.

**Abstract** : Household Register of South Kyongsang Province compi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04 keeps complete details on local houses of eleven out of a total of thirty-one counties in the district. This study examin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imary source materials, the specifics of traditional housing of South Kyongsang Provi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gnitude of housing lots, size of dwellings, land and hous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thatch and tile roof houses by dong, myon and county. Findings from the survey of the household register suggest that approximately 20 percent of households were established on the private or rented public lands, that 90 percent resided in undersized housing with just one or two rooms besides a kitchen, and that the regional average of dwelling size was no bigger than 2.75 rooms. The fact clarifies that the three-room thatch houses prevailed in South Kyongsang Province about a century ago. The miserable living conditions were translated into a constricted personal space of 2 to 4 square meters and a small-size household of less than 4 family members.

**Key Words** : commission merchants' house, horse ranching pasture land, household registers, housing lot, land registers, landowner's house, post station land, royal household land, tenant house, thatch house, tile-roof house.

### 1. 서론

#### 1) 연구목적

최근까지 조선후기의 가정은 3~4대가 한 울안  
에 거주하는 대가족을 형성했었다는 개념이 상식

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대가족이 살려면 적  
어도 두 채(棟) 이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집  
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연 開化期의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주거를 보유했었는지는 많  
은 의문을 갖게 한다.

필자는 근래 『慶尙南道家戶案』<sup>1)</sup>을 입수하고 이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L1071).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koreawks@hanmail.net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경남지방의 살림집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가호안은 경상남도의 32개군 가운데 11개군을 덮는 자료에 불과하나 작성 시기가 동일하고 평야, 내륙분지, 산지, 해안지방 등을 고르게 포함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1세기전 이 지방 살림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결과를 경상북도, 호남지방 등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리학 및 민속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류층 저택을 배제한 서민층 주거만을 民家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서민층 가옥은 지역주민이 地性資材만을 사용하여 직접 지은 살림집이므로 풍토성을 잘 반영하는 반면에 상류층 가옥은 설계로부터 자재구입, 造營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축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달사적 측면에서 볼때 민가는 가장 단순한 건축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짓는 원시형가옥, 기본구조는 특수 기능인의 설계에 의존하나 건물의 외벽·지붕·내부장식은 토착기능인에 의해 마감, 처리되는 풍토적 가옥(vermacular house)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前産業型 가옥과 산업형 가옥으로 나뉜다(Roberts, B.K., 1996, 69-70). 일반적으로 국내 학계에서 민가(folk house)로 정의하는 가옥은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원시형 가옥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瓦家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호안에 수록된 와가는 그 비율이 극히 낮고 규모도 10칸 미만의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초가는 서민의 주거로 인식되나 지역에 따라 10칸 이상의 큰 집이 적지 않고 班村의 가옥도 대부분이 초가이므로 상류양반층은 대규모 와가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초가뿐 아니라 와가까지 포함하여 풍토적 가옥의 차원에서 이 지방의 가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가호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家座의 소유관계, 가옥의 규모와 民戶의 구조, 草·瓦家の 지역적 분포상 등 주거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부수적으로 1970년대 이래 경제사학과 사회학계에서 제기한 조선시대 核家族說의 진위를 실증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하

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필자는 古典 속에 담긴 선조들의 卜居觀과 住居觀을 고찰하고 지리학·건축학·민속학·경제사학·사회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특정 촌락의 호적표를 분석하면서 가옥의 일부를 연구내용에 포함시키거나 『가호안』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道 단위로 전통가옥의 定型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필자는 경남 11개군의 가호안에 수록된 158개 면의 家座(대지)의 등급, 가좌 및 가옥의 소유형태, 가옥의 규모와 종류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밖에 경남 단성군과 의령군, 경북 안동군 일부 지역의 戶籍表도 참조하여 민가의 규모와 1인당 점유칸수를 고찰하였다. 동시에 『韓國戶口表』<sup>2)</sup>와 『民籍統計表』<sup>3)</sup>를 이용하여 가옥의 평균칸수가 크거나 와가의 분포율이 높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문헌연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자는 1995년, 1997년, 1999년의 답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設村의 역사가 100년 이상된 경남 동부산지의 6개 마을, 낙동강 및 남강유역평야 및 분지의 9개 마을, 서부산지의 18개 마을, 해안지방의 8개 마을에서 수집한 것으로<sup>4)</sup>, 연구지역의 약 1/3이 가호안에 등재된 지역에 해당된다.

답사자료의 활용에 앞서 이 마을들이 개화기에 어떤 행정구역에 속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 郡 및 面 단위의 행정구역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실시된 1914년 이전의 31개 군과 158개 면의 경계선을 복원하는 것으로, 가호안의 면단위 행정구역이 『한국호구표』, 『민적통계표』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의 면·리·동과 대조하고, 이를 『海東地圖』, 『朝鮮後期地方地圖』, 1895년에 간행된 1:50,000 지형도<sup>5)</sup>, 1917년판 1:50,000 지형도 등을 참조하였다. 이 복원도는 가좌의 토지등급, 가좌의 소유관계(임차대지), 지역별·가옥규모별 호수, 와가의 분포 등 분석자료를 지도화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다.

## 2. 『가호안』작성의 배경과 내용

### 1) 배경

『가호안』 작성의 배경은 19세기 말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哲宗 13년(1862) 2월 경상남도 丹城과 晋州 일원에서 발생한 농민봉기는 인접한 咸陽, 居昌 등지를 거쳐 경상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이어서 전라도와 충청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 후로도 소규모의 농민항쟁이 도처에서 발생하였으며, 1894년에는 드디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이러한 봉기를 통하여 농민들의 소망은 성취되지 못했을지라도 농민층의 의식은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지배층에도 적지 않은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 집권자나 지주층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력, 즉 開化派가 등장하였다. 비록 이 정권이 단명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三政의 문란이 농민운동의 원인이었음을 파악한 개화파의 노력은 甲午改革과 光武改革으로 나타났다.

量田論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재정개혁 방안인 바, 농지뿐 아니라 墾地를 포함한 모든 토지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稅收源을 확보하는 일종의 地租改正案이다. 1898년 대한제국정부는 양전을 담당하는 量地衙門을 설치하고 실무진으로 양전감리, 양무위원, 조사위원 및 기술직을 두기로 하였다(金容燮, 1984, 273). 이때 측량기술인으로 미국인 수석기사 巨廉(Krumm, R.E.L.)을 초빙하고 조수로 소수의 일본인들을 채용하였다(宮嶋博史, 1991, 240). 이듬해 조정은 지방관 중에서 4명의 量田監理를 선임하였는데, 경상남도는 거창군수 南萬里가 담당하였다.<sup>6)</sup> 그에 의하여 경남 10개 군현의 토지조사가 완료되었고, 1902년 3월에 설립된 地契衙門이 양지아문의 업무를 계승하여 나머지 1府 20개군의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31개군의 『가호안』이 완성되었다.

농상공부대신 李道宰가 의정부에 제출한 토지측량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면 토지측량은 정치유신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田畝·山村·川澤·家座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측량비는 토지의 비옥도, 토성,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瓦屋 1間の 측지비는 草家 1칸의 그것의 5배에 달했으며, 이는 논 1負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었다.<sup>7)</sup> 이로써 대지는 절대면적상 농지보다 협소하나 稅收次元에서는 가치가 높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호안』의 작성은 토지 소유권의 확립, 토지와 가옥, 인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세수입 증대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영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영하, 1995,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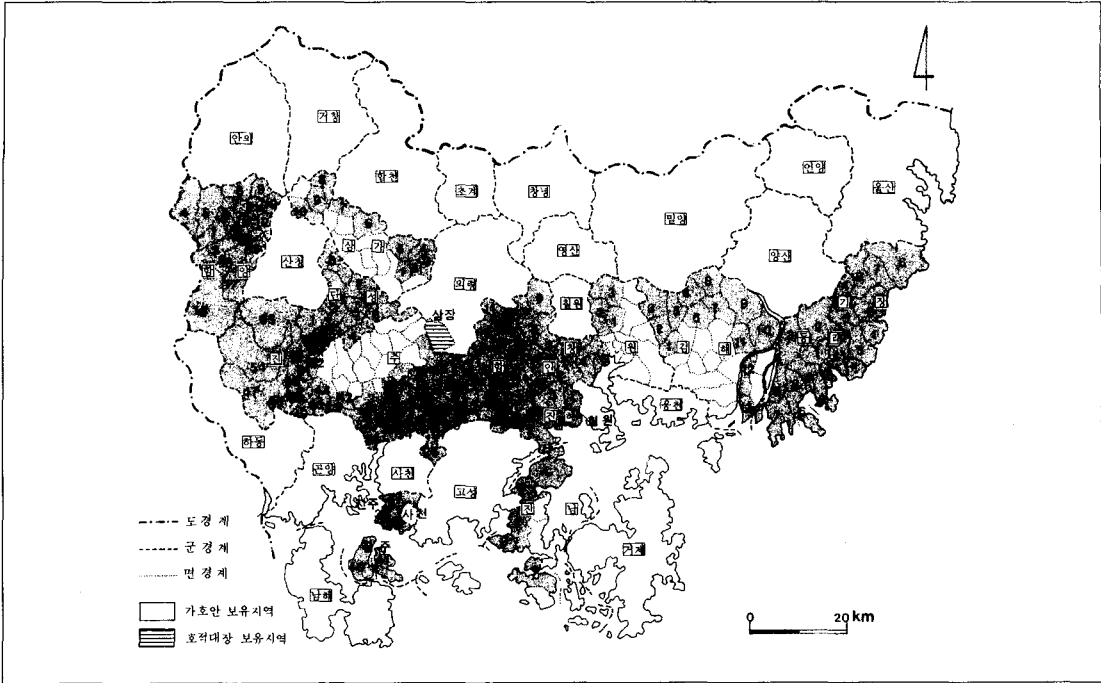
### 2) 『가호안』의 내용

규장각 소장본인 『家戶案』은 지계아문에서 작성한 것으로, 경상남도 31개군 가운데 현전하는 11개군 자료이다. 1904년 당시 경상남도의 행정중심지로 가장 면적이 넓고 호수가 많았던 晋州郡은 5책, 咸陽郡·東萊郡·咸安郡은 각 2책, 昌原郡등 7개군은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주는 본래 6책, 창원·삼가·진남·김해의 4개군은 2책으로 작성되었으나 1책씩 나뉘던 것으로 사료된다.

『가호안』의 기초조사단위는 자연촌락인 洞(里·村)이며 面단위로 집계되었다. 면의 수는 지역이 넓은 진주군이 56개, 함양·함안·창원군은 18개, 규모가 작은 진해는 4개이다(그림 1). 동의 수도 진주의 470개를 수위로, 함양·김해·동래·단성·함안·삼가 등이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만일 낙질이 되지 않았다면 김해군은 25개면, 300개 이상의 동으로 구성된 제2위의 큰 군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1).

面·洞의 수는 家戶의 수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호수 2호의 극소형 洞이 있는가 하면 240호의 거대한 동이 있고, 면도 최소 37호로부터 최대 1238호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가호안』의 동별 및 면별 가옥의 칸수(間數)합계는 오류가 심할 뿐 아니라 문화재급 저택들중 상당수가 누락되어 『가호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옥일지라도 20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동·면·군별 가호를 칸수별로 검산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가호안』의 조사항목은 字號地番, 家座의 토지등급, 가좌와 家의 소유구분, 초·와가 구분, 가옥의 규모 등이다. 가좌 즉 대지는 과거의 結負法에 따



<p><b>&lt;진주군&gt;</b>                  1. 대안 2. 증안 3. 평거 4. 가의 5. 도동                  6. 조동 7. 이곡 8. 문산 9. 갈곡 10. 가좌                  11. 금산 12. 대어촌 13. 대곡 14. 하용봉                  15. 상용봉 16. 상사 17. 용암 18. 일반성                  19. 이반성 20. 가수개 21. 양전 22. 외진성                  23. 내진성 24. 개천 25. 영이곡 26. 영현                  27. 금동 28. 지공 29. 송곡 30. 오읍곡                  31. 목정촌 32. 축동 33. 축곡 34. 가차례                  35. 내동 36. 부회곡 37. 상남양 38. 중남양                  39. 하남양 40. 창선 41. 적량 42. 마동                  43. 원당 44. 수곡 45. 북평 46. 대야천                  47. 청암 48. 운곡 49. 정수 50. 증화 51. 가서                  52. 백곡 53. 금이만 54. 시천 55. 삼장                  56. 섭천  <b>&lt;창원군&gt;</b>                  1. 북일 2. 북이 3. 북삼 4. 서일 5. 서이</p>	<p>6. 서삼.  <b>&lt;김해군&gt;</b>                  1. 진례 2. 하계 3. 대산 4. 상북 5. 중북                  6. 하북 7. 생림1작 8. 생림2작 9. 상동                  10. 하동 11. 활천 12. 덕도 13. 명지  <b>&lt;진남군&gt;</b>                  1. 서부 2. 도선 3. 산내 4. 광삼 5. 광이  <b>&lt;진해군&gt;</b>                  1. 동 2. 서 3. 북 4. 하북  <b>&lt;기장군&gt;</b>                  1. 읍내 2. 동 3. 남 4. 상서 5. 하서                  6. 상북 7. 중북 8. 하북  <b>&lt;동래군&gt;</b>                  1. 읍내 2. 북 3. 서상 4. 서하 5. 사상                  6. 사중 7. 사하 8. 동평 9. 남하 10. 남상                  11. 동상 12. 동하</p>	<p><b>&lt;함안군&gt;</b>                  1. 상리 2. 산익 3. 산외 4. 산내 5. 안인                  6. 내대 7. 외대 8. 우곡 9. 백사 10. 마륜                  11. 대산 12. 남산 13. 안도 14. 죽산                  15. 산족 16. 대곡  <b>&lt;단성군&gt;</b>                  1. 군내 2. 원당 3. 북동 4. 오동 5. 도산                  6. 생비량 7. 신동 8. 법률  <b>&lt;함양군&gt;</b>                  1. 원수 2. 석북 3. 죽곡 4. 백전 5. 병곡                  6. 북천 7. 지내 8. 덕곡 9. 백토 10. 도북                  11. 모간 12. 시근 13. 관변 14. 예림                  15. 유등 16. 휴지 17. 엄천 18. 마천  <b>&lt;삼가군&gt;</b>                  1. 현내 2. 유인 3. 상곡 4. 백동 5. 백산                  6. 대평 7. 계산 8. 옥계 9. 모곡 10. 울원</p>
---	--	---

그림 1. 연구지역 -『경상남도가호안』 및 호적대상 보유지역-  
 주 : 지도상의 숫자는 지도 하단의 각 군 면이름을 가리키며 고딕체 지명은 각 군의 越境地이다.

라 6등분하였는데(金容燮, 1984, 286), 이는 토지등 급에 따르는 징세액 차등화의 기초가 되었다.

### 3. 家座의 소유관계와 賃借地

#### 1) 가좌의 소유

家란 본래 '가좌'를 가지고 있는 烟戶를 일컫

표 1. 경상남도 『가호안』의 내역

군 명	책 수	면 수	동 수	규장각 문서번호	비 고
진 주	5	56	470	17944	제6책 낙질(14면)
함 양	2	18	205	17945	
함 안	2	18	115	17946	
동 래	2	12	152	17947	
창 원	1	6	68	17948	상책 낙질(12면)
기 장	1	8	88	17949	
삼 가	1	10	111	17950	하책 낙질(10면)
단 성	1	8	120	17951	
진 해	1	4	77	17952	
진 남	1	5	48	17952	상책 낙질(9면)
김 해	1	13	173	17953	하책 낙질(9면)
계	18	158	1627		낙질 5책(54면)

는 것이므로 자기 소유지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개화기에는 상당수의 백성이 지주의 사전 또는 국공유지를 빌어 집을 짓고 살았다. 『大典會通』에 '집은 밭에 짓는데 밭은 賭租制로 되어 田主는 賃借人이 그 땅에 경작을 하건 집을 짓건 문제삼지 않는다. 空墾나 圃田을 막론하고 백성에게 가옥건축을 허가했을때 진주가 이를 방해하면 制書有違律로서 논죄한다'<sup>8)</sup>고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임의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임차대지는 집을 지은 후 소작료에 준하며 地代를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최원규, 1995, 238),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私田과 國公有地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공유지의 경우 '軍兵으로서 공유대지에 入居하는 자는 면세한다'<sup>9)</sup>고 하였으므로 수영과 병영을 비롯한 군사기지에 거주하는 군병은 물론 兵曹 소속 驛戶民과 목장의 牧夫들 역시 면세대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田에 준하여 6등분된 가좌는 등급에 따라 實面積에 차이가 있었다(표 2). 즉 토지등급이 낮을수록 실면적은 넓었다. 1등전 1결은 38畝에 준하는데<sup>10)</sup> 사방 1척을 10把, 1파를 1束, 10속을 1負라 하고 100부는 1결에 해당되었다. 개화기의 도량형 규칙에 따르면 1결은 약 10,000m<sup>2</sup> 즉 1ha에 해당되었다.<sup>11)</sup> 대지의 등급을 나눈 목적은 등급에 준하여 지대를 차등있게 징수하는데 있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등급별 면적에 따라 賭稅의 차이가 있었으

표 2. 대지의 등급별 면적

내역 토지등급	周尺	實面積	환산면적(m <sup>2</sup> )
1	4척7촌7분5리	38畝	1,0000
2	5척1촌7분5리	44畝 7分	11,763
3	5척7촌3리	54畝	14,211
4	6척4촌3분4리	69畝	18,158
5	7척5촌5분	95畝	25,000
6	9척5촌5분	152畝	40,000

자료 : 『官報』 (1902년).

며, 지대는 太栗 등 곡물로 납부하였으나 일제시대 초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였다. 경상남도의 자료가 없어 편의상 경북 상주군 역둔토의 양안으로 도세를 파악해보면 같은 등급의 토지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이 자료를 경상남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나 상주 역시 경상남도에 비해 토지의 비옥도가 별로 낮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897년 內需司 庄土<sup>12)</sup>의 지대는 결당 租100斗, 즉 소출량의 약 10.7%였다는 연구가 있는데(李榮薰, 1988, 451-452), 14년이 경과한 1911년 경상남도의 상등전 지가가 50원이고 지대는 0.48원, 중등전은 지가 30원에 지대 0.384원, 하등전은 지가 15원에 지대 0.30원이었다.<sup>13)</sup> 두 시기의 지가는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

표 3. 토지의 등급별 지대

지역	토지등급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상주 낙동역	結負數 賭稅	2부8속		2부			
		太3斗		太2斗5升			
상주 낙서역	結負數 賭稅	3부8속	3부5속	2부9속	2부5속	2부1속	
		太3斗2升	太2斗2升	太1斗3升	太7升	太5升	

자료 : 『尙州郡各屯田驛畓永定賭稅成冊』(奎17912), 司稅局, 1905)

토지등급이 6등분에서 3등급으로 바뀌었, 지대가 상승전은 지가의 1/104, 중등전은 1/48, 하등전은 1/50인 점을 참조하면 상주 역둔토의 경우에 비해 중·하등전에 대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가호안』의 가좌는 절대면적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래군 沙中面과 沙下面의 量案에는 地目이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 바<sup>14)</sup> 사중면은 부산 개항(1876년) 당시 100여호에 불과했던 호수가 1905년에는 400호 이상으로 급증하여(金義煥, 1973, 50) 토지분할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경남의 일반 농촌과의 비교가 부적절 하므로 도시화의 영향이 적었던 사하면 17개동의 대지 72좌의 면적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1좌당 최대 10부 2속, 최소 6속, 호당평균 대지면적이 약 2부 1속(210m<sup>2</sup>)의 대지를 소유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가호안』에 등재된 가옥(45,196호) 가운데 가옥과 가좌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는 약 79.6%이고

나머지는 임차대지상의 가옥이었다. 물론 1좌의 대지에 여러 채의 가옥이 들어 앉은 예도 적지 않다. 임차대지의 비율은 함안·김해·진주 등 3개군이 평균치(20.5%)를 상회하고 단성·삼가·기장 등지는 매우 낮다(표 4). 면단위로 보면 낙동강 유역 평야지대는 임차가좌율이 매우 높은 반면 내륙분지와 곡저평야가 발달한 진주군의 일부, 함양군(6개면), 삼가군(5개면), 단성군(3개면), 동래군(2개면), 기장군(1개면) 등 일부지역에는 임차대지가 전혀 없다(그림 2).

2) 종류별 賃借家座의 분포

모든 가호의 대지는 자기소유전과 임차전으로 구분된다. 임차전은 사전과 국공유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개인 지주의 토지가 대부분이지만 약간의 寺院田<sup>15)</sup>과 齋室田이 포함되고 후자는 驛屯田, 牧場田, 司圃暑屯田<sup>16)</sup>, 水兵營田, 중앙관아 소유전, 지방관아 소유전, 궁방전, 洞中 및 宗中田, 學田 등

표 4. 군별 가좌의 소유관계

군명	총가호수	자기소유가좌(%)	임차가좌(%)	비고
진주	12,176	78.7	21.3	임차율 평균치 상회
함양	5,796	87.8	12.2	
함안	5,037	57.1	42.9	임차율 평균치의 2배
동래	4,779	79.6	20.4	
창원	3,015	83.6	16.4	
기장	2,099	91.8	8.2	
삼가	1,912	97.1	2.9	
단성	2,509	97.1	2.9	
진해	1,109	86.6	13.4	
진남	2,064	83.9	16.1	
김해	4,760	72.6	27.4	임차율 평균치 상회
계	45,256	평균 79.5	평균 20.5	

으로 세분된다(표 5).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대지는 총 가호의 약 20.5%(9,764호)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사건의 비율이 68.1%를 차지한다. 함안, 동래, 김해 등지는 임차가좌의 대부분이 지주의 소유지로 특히 함안은 총 가호의 41.5%, 김해는 34.2%가 지주의 토지를 임차하여 지은 집이다. 반면에 진주, 기장, 단성은 사유지 임차율이 비교적 낮다.

국유전은 총 임차가좌의 약 28.1%를 차지하는데 이 중 64.8%가 진주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함양(8.7%), 김해(8.2%), 동래(4.3%) 등지에도 많이 분포한다. 반면에 삼가, 단성, 창원, 함안 등지에는 국유지가 비교적 적다. 국유전을 대표하는 목장전 가좌는 총 1055좌(국유지의 38.1%)로 그 대부분이 진주군 越境地인 창선면(895좌)과 적량면(102좌)에 집중되며 진남군 서부면(53좌)과 동래군 남하면(5좌)에도 약간 분포하였다. 역둔전 역시 목장전에 필적하는 1054좌(38.1%)에 달하였다. 경상남도에는 沙斤道, 召村道, 自如道, 黃山道 등 4개의

驛道가 있었으며 이들 역도 소속역 가운데 함양의 사근역, 진주의 소촌역 등 2개 察訪驛을 비롯한 19개역이 연구지역 11개군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sup>17)</sup> 역둔전 가좌는 소촌역의 403좌, 사근역의 138좌, 김해군 생림일작면 소재 금곡역의 86좌, 기타 16개역의 427좌로 산포되어 있었다. 특히 진주군 문산면(소촌역 소재지)은 가좌(497좌)의 약 81%, 함양군 사근면은 가좌(278좌)의 약 50%가 역토일 정도로 규모가 큰 역촌이었다. 사포서들은 국유지의 약 9%를 점유하는 242좌인데 대부분이 지리산 동쪽 산록의 진주군 청암면(96좌), 시천면(71좌), 삼장면(75좌), 기타(6좌) 등지에 분포하였다. 水營屯田은 統營과 가까운 진해군(49좌), 진남군(22좌), 창원군(18좌) 등지에, 그리고 경상좌수영 소재지 인근의 동래군 남상면·남하면(22좌)에 분포하였고, 부산진(8좌), 창원의 병영(5좌), 김해(1좌) 등지에는 육군진의 둔전대지가 있었다.

관둔전은 중앙관부 소유전과 지방관아전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공유전의 약 1.9% 정도에 불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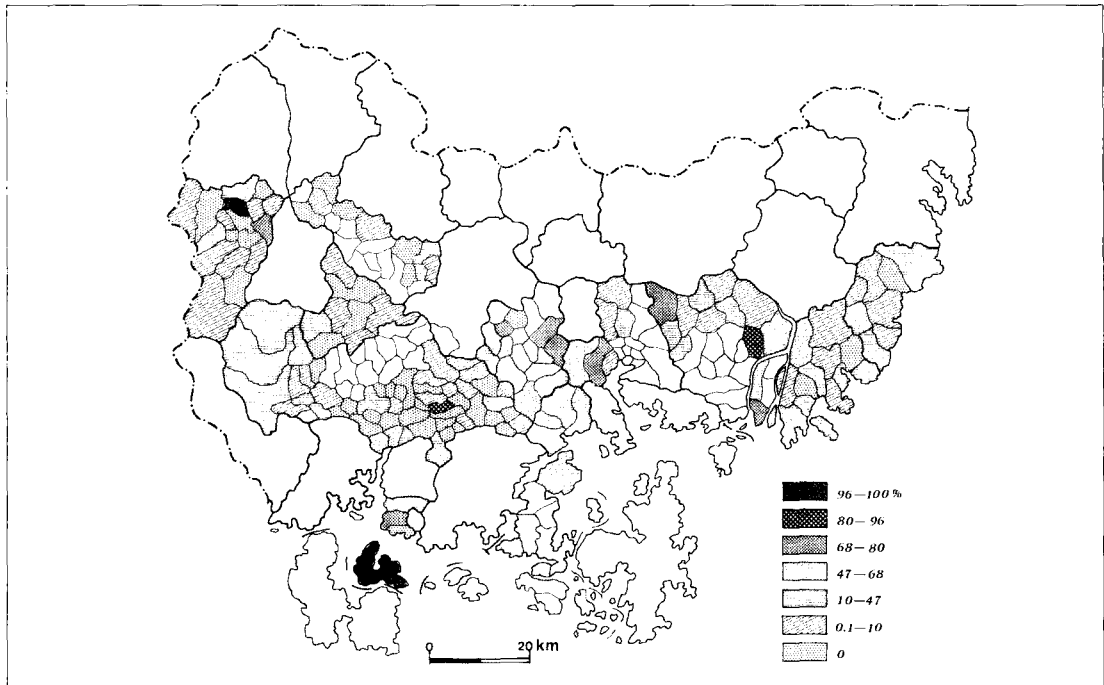


그림 2. 면별 임차가좌의 비율

주 : 임차가좌 비율은 함양군 지내면과 진주군 월경지인 창선면·적량면이 가장 높고 진주군 영이곡면과 김해군 활천면이 또한 높은 편이다.

표 5. 경상남도 각 군의 종류별 입차가좌

군명	사유(%)	국유(%)	공유(%)	계(%)
진주	624(24.1)	1,792(69.2)	172(6.7)	2,588(100)
함양	464(65.8)	241(34.1)	1(0.1)	706(100)
함안	2,093(97.1)	49(2.3)	13(0.6)	2,155(100)
동래	885(88.1)	119(11.9)	0	1,004(100)
창원	363(73.5)	37(7.5)	94(19.0)	494(100)
기장	57(33.3)	65(38.0)	49(28.7)	171(100)
삼가	40(72.7)	15(27.3)	0	55(100)
단성	30(41.1)	37(50.7)	6(8.2)	73(100)
진해	231(74.8)	78(25.2)	0	309(100)
진남	233(68.9)	105(31.1)	0	338(100)
김해	1,626(86.9)	229(12.2)	16(0.9)	1,871(100)
계	6,646(68.1)	2,769(28.1)	351(3.8)	9,764(100)

며 守禦廳, 宮內府, 內需司, 忠勤府, 訓練院 등 5개 관청소속 토지로 나뉜다. 수어청둔토는 김해군(23좌)과 창원군(2좌), 궁내부전은 창원군(4좌), 훈련원 소유지는 김해군(9좌), 내수사토지는 김해군(8좌), 충훈부전은 함양군(3좌)과 삼가군(4좌) 등지에 산포하였다. 지방관아 소속전은 국공유지 면적의 약 8.2%에 달하며 아록전·향청전·관아전·將房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토지는 함양군(83좌)에 가장 많았고 단성군(37좌), 동래군(34좌), 진남군(29좌), 진해군(25좌), 진주군(13좌), 함안군(4좌), 김해군(1좌)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궁방전으로는 창원군 서일면의 宣禧宮田(2좌), 김해군 덕도면의 明禮宮田(9좌)과 명지면의 龍洞宮田(21좌)이 있었다. 선희궁과 명례궁 소속전은 농장부속 가좌였으나 용동궁전은 鹽場의 부속가좌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大東輿地圖』의 鳴旨島에 '煮鹽最盛'이라 표기되어 있고 『경상도읍지』에는 명지도를 '在府南海中水路三十里 周十七里 天將大風雨則島必鳴聲若隱雷 居民煮鹽爲業'<sup>18)</sup>이라고 묘사되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는 이 섬의 취락 입지 조건은 양호하지 못하나 제염업이 발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래 이 섬에는 궁방과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운영된 50여개의 鹽盆과 60여결의 염전이 있었으나<sup>19)</sup> 1745년 명지도가 公鹽場化하여 1819년까지 別將에 의해 관리되었다(姜萬吉, 1984, 170). 공염제도가 폐지된 후 염장은 소수의 富商大賈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으나 용동궁 소유가좌 다수가 존재했던 점으로 보아 20세기 초까지도 궁방소유 염장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洞中 및 宗中 소유전과 학전은 총 393좌(약 12.6%)에 달하며 대부분이 동중전(330좌)이고 60좌는 學位堡·里塾堡·校宮堡이다. 동중대는 대부분이 진주(173좌), 창원(96좌), 함양(37좌)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는데, 특히 진주군 월경지인 중남양면 실안촌(62좌)과 대방촌(61좌), 상남양군 송천동(50좌)의 대지는 대부분이 동중대였다.<sup>20)</sup>

#### 4. 지역별 가옥의 규모와 戶의 구조

##### 1) 지역별 가옥의 구조

星湖 李瀾은 '백성들에게 급한 것으로는 먹는 것이 첫째이고 입는 것이 다음이며 거처하는 집이 또 그 다음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실학의 대표적 인물인 그가 인간생활의 3대 속성 가운데 가옥의 중요성을 食·衣보다 낮게 평가한 것을 보면 조선 후기 백성들의 집은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들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 민가의 규모에 대한 도단위지역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전국적인 평균 칸(間)



표 6. 군별 칸별 호수와 비율

(단위:호)

군	칸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호수
진주		4,322 (35.5)	6,663 (54.7)	993 (8.2)	162 (1.3)	19	3	1	1	0	1	0	0	2	0	0	0	0	0	0	12,176 (100.0)
함양		2,743 (47.2)	2,791 (48.2)	236 (4.1)	13	5	2	2	1	2	0	0	0	0	0	0	0	0	0	1	5,796 (100.0)
함안		1,882 (37.4)	2,583 (51.3)	420 (8.3)	121 (2.4)	23	5	1	1	1	0	0	0	0	0	0	0	0	0	0	5,037 (100.0)
동래		1,012 (21.2)	2,836 (59.3)	651 (13.6)	178 (3.7)	59 (1.2)	0	24	7	4	3	4	0	0	0	0	1	0	0	0	4,779 (100.0)
창원		1,458 (48.4)	1,379 (45.7)	168 (5.6)	10 (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15 (100.0)
기장		734 (35.0)	1,068 (50.9)	261 (12.4)	29 (1.4)	2	3	1	0	0	0	0	1	0	0	0	0	0	0	0	2,099 (100.0)
삼가		591 (30.9)	1,119 (58.5)	175 (9.2)	22 (1.2)	3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912 (100.0)
단성		640 (25.5)	1,572 (62.7)	192 (7.6)	75 (3.0)	22 (0.9)	5	0	0	1	1	0	0	1	0	0	0	0	0	0	2,509 (100.0)
진해		313 (28.3)	751 (67.7)	37 (3.3)	7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09 (100.0)
진남		570 (27.6)	1,274 (61.7)	194 (9.4)	20 (1.0)	2	2	0	2	0	0	0	0	0	0	0	0	0	0	0	2,064 (100.0)
김해		2,652 (55.7)	1,964 (41.3)	131 (2.7)	1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760 (100.0)
계		16,917 (37.4)	24,000 (53.0)	3,458 (7.7)	649 (1.4)	137 (0.3)	27	32	12	9	4	5	1	1	2	0	1	0	0	1	45,256 (100.0)

자료 : 『경상남도 가호안』 18책, ( )안의 수치는 %임.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磻溪가 庶人의 家舍는 10칸, 私家는 5칸 정도<sup>22)</sup>라 하였으나 오늘날의 건축사가들은 3칸호를 조선시대 민가의 표준형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申榮勳, 1983, 56), 이는 3칸집을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 주거규모로 본 『山林經濟』에 근거하는 주장인 듯 하다.<sup>23)</sup>

경상남도 11개군의 45,256호를 칸수별 비율로 보면 2칸호 37.4%, 3칸호 53.0%, 4칸호 7.7%, 5칸호 1.4%, 6~20칸호는 0.5% 정도에 불과하다(표 6). 3칸호의 비율이 전체 가호의 반 이상을 차지하나 지역 평균칸수는 2.75칸에 불과하고 김해(2,48칸), 함양, 창원은 평균치보다 낮다. 호당 평균치가 가장 높은 동래군(3,09칸)이 겨우 조선시대의 이상적 가옥의 규모인 3칸호 수준을 약간 상회할 뿐이고

단성, 진남, 기장, 함안, 진주, 진해 등 6개군은 평균치보다 다소 높다.

『가호안』 자료를 경남 단성군 남면(원당리 배양동)<sup>24)</sup>과 의령군 상정면, 경북 안동군 남선면의 호적표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들 3개 문헌에 수록된 호수는 배양동이 5개리 57호, 상정면이 7개동 320호, 남선면은 14개동 364호이다.<sup>25)</sup> 배양동은 陝川 李氏가 약 80%를 차지하는 班村임에도 불구하고 와가가 전무하고 평균 칸수도 작은 편이나 6칸호의 비율은 21%를 상회한다. 특이한 점은 무주택호와 1칸호가 존재하는 사실이다. 상정면은 2칸호 30.3%, 3칸호 34.7%, 4~5칸호 26.5%, 6~9칸호 8.5%로 중형 이상의 가옥이 많으며 창령 曹氏, 거창 李氏, 합천 李氏, 진주 姜氏 등의 동족촌이 많고 3개 지역중 유일하게 4호의 와가가 분포한다. 남선

표 7. 영남지방 3개 지역 가옥의 칸수별 분포

지역	칸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호수	총칸수	평균칸수
단성군 남면 배양동		1	1	11	31	1		12								57	192	3.37
의령군 상정면			1	96	111	33	52	23	1	2	1					320	1,100	3.44
안동군 남선면			3	53	139	55	33	78		2				1		364	1,405	3.97

자료 1. 『경상남도단성군호적표』 2. 『경상남도군상정면 호구조사표』 3. 『경상북도안동군기해식적표』

면은 호당 평균 칸수가 경남의 2개면보다 월등히 크다. 경남 2개면은 양반호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선면에는 良人 9호, 私奴 8호, 匠人 9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7). 그럼에도 불구하고 6칸호 21.4%, 4~5칸호 24.2%로 중형가옥의 비율이 경남 2개 지역보다 높다. 전통적으로 안동지역은 定型化된 큰 집을 짓고 주거를 잘 정돈하는 생활을 중요시한 남인계 사대부들의 본거지였으므로(洪升在, 1992, 71-72) 남선면도 그 영향을 받아 중형가옥이 비교적 많이 분포했던 것 같다. 주목할만한 점은 1인세대인 匠人戶의 가옥들이 평균 4.3칸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중부지방 量案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군(14,846호)의 호당 평균규모는 4.2칸, 광주군(13,261호)은 3.9칸, 안성군(4,349호)은 3.8칸, 충청남도 온양군(3,387호)은 4.1칸이었다(金容變, 1984, 371). 이와 비교해보면 영남 3개지방 가운데 중부지방 수준의 가옥을 가진 곳은 남선면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는 3칸호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으나 4~6칸호는 9.4%, 7~20칸호는 0.2%에 불과하므로 중부지방은 물론 의령군 상정면보다도 가옥규모가 작았다.

면단위로 가옥의 평균칸수를 보면 진주군은 하용봉면(3.61칸)등 27개면, 창원군은 북삼면(3.12칸)등 2개면, 진남군은 산내면(3.17칸)등 3개면, 진해군은 북면(3.29칸)등 2개면, 기장군은 읍내면(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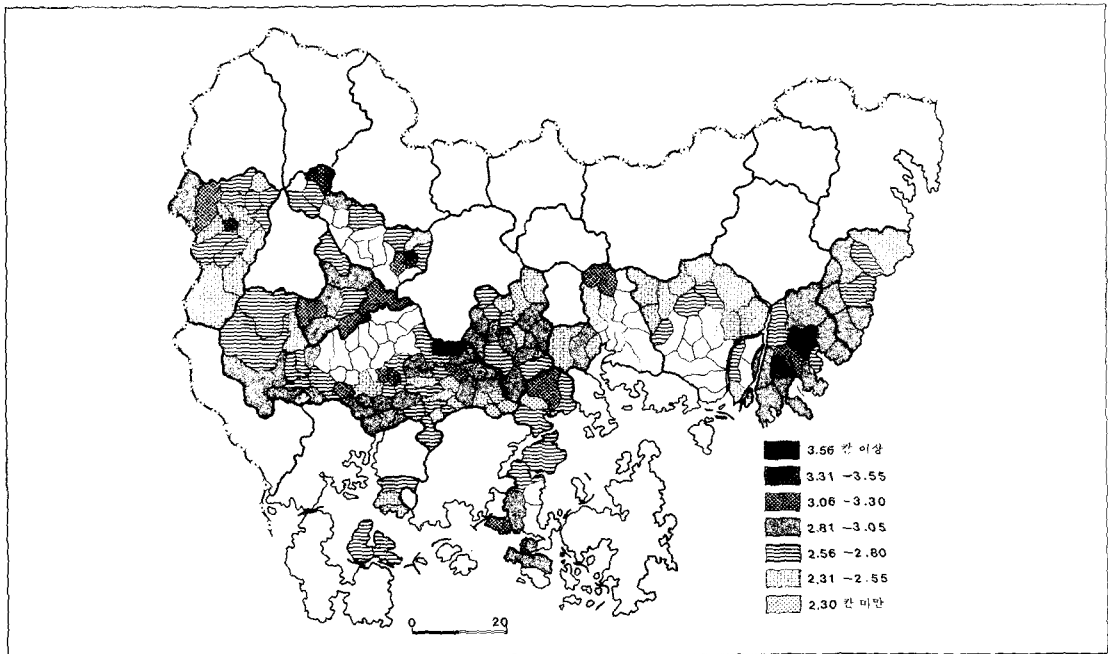


그림 3. 면별 가옥의 평균칸수

주 : 면별 가옥의 규모는 동래군 읍내면과 진주군 하용봉면이 가장 크고 동래군 동평면, 진주군 용암면, 삼가군 유인면·옥계면, 함양군 죽곡면도 비교적 큰 편이다.

칸)등 6개면, 동래군은 읍내면(3,75)등 9개면, 함안군은 병곡면(3,21칸)등 10개면, 단성군은 오동면(3,26칸)등 7개면, 함양군은 죽곡면(3,19칸)등 4개면, 삼가군은 옥개면(3,39칸)등 6개면이 지역평균치보다 가옥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진주 29개면, 김해 14개면, 함양 14개면등 87개면은 평균치에 미달된다.

면별 가옥의 평균칸수는 3.75칸의 동래군 읍내면이 최고이고 2.17칸의 함안군 외대면이 최저수준이다. 표준편차에 따라<sup>26)</sup> 경남 158개 면을 7계급으로 구분한 결과(그림 3) 최상급에 속하는 면은 동래읍과 진주군 하용봉면이고, 제2계급은 진주 용암면 등 4개면, 제3계급은 단성 군내면 등 16개면, 제4계급은 56개면, 제5계급은 54개면, 제6계급은 25개면, 제7계급은 함안군 외대면 1개로 나타난다. 2등급의 동래 동평면은 56.7%, 진주 대안면은 34.2%, 삼가 옥계면은 약 10%에 달하였다.

경남의 가옥규모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1627개동 가운데 20호 이상의 마을을 선정하고 2칸호와 3칸호의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2칸호는 약 37.4%, 3칸호는 약 53%를 차지하여

이러한 영세규모의 가옥이 경상남도 11개군 총 가옥의 90%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호 이상의 마을 907동 중 2칸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수는 김해65, 진주64, 함양52, 함안29, 창원22, 기장14, 동래와 단성 각 12, 진남8, 삼가7, 진해5 등 총290개 동이다. 이 가운데 80%를 넘는 마을수가 진주9, 함안과 함양 각 7, 김해5, 단성4, 창원3, 진해2, 동래와 삼가 각 1개씩 총 39개 동이다. 특히 진주군 개천면 하물안동·삼장면 유평촌, 김해군 명지면 하신리는 마을의 가옥 전체가 2칸호이고 함양 예림면 국제동·마천면 내마동과 동마동, 진해 동면 성내동과 하북면 상령동, 김해 명지면 신전동의 90% 이상이 2칸호로 구성되어 있다.

면단위로 2칸호 비율이 높은 곳은 총가옥수(298호)의 83.6%에 달하는 함안군 외대산면이다. 그밖에 창원군 서삼면(1248호), 함양군 마천면(756호), 김해군 명지면(717호)등 500호 이상 큰 면은 2칸호 비율이 60%를 상회하며, 100호~500호의 면 가운데 함양4개면, 김해3개면, 진주2개면 등 16개면도 2칸호가 60% 이상에 달한다. 동단위로 2칸호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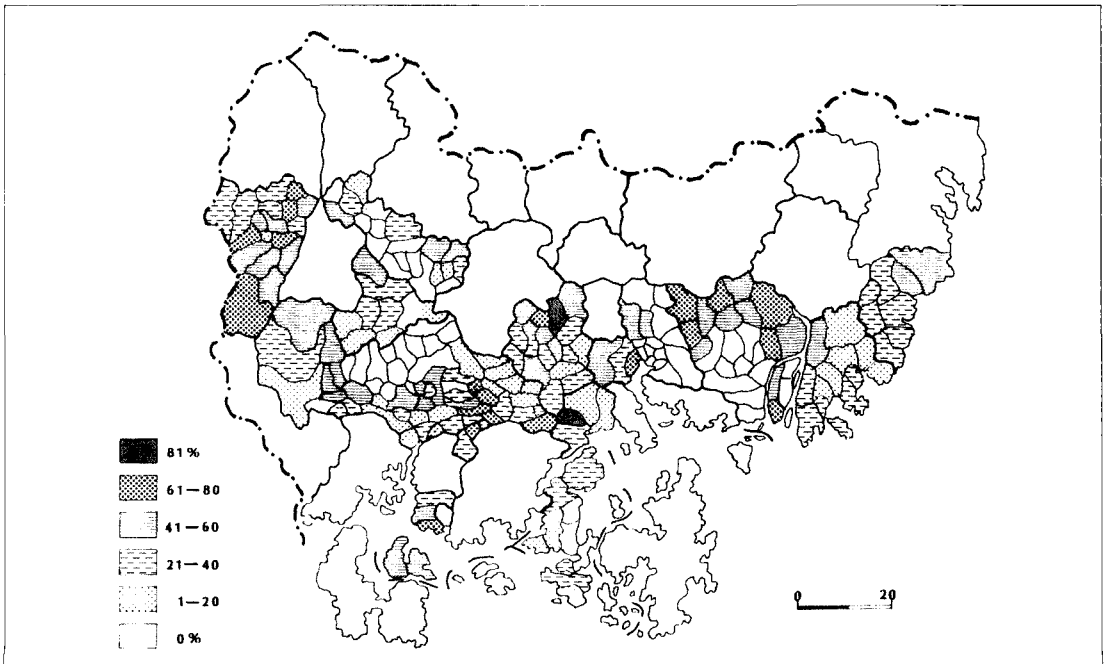


그림 4. 면별 2칸호의 비율

가 100호를 넘는 큰 마을은 진주군 하남양면 문신동(240호의 64.2%)을 비롯한 7개동, 50~100호인 마을은 진주군과 김해군에 각각 6개동, 창원군과 함양군에 각각 5개동, 함안군 4개동, 진남군과 단성군에 각각 1개동이다(그림 4).

3칸호는 경상남도 가옥의 53%를 차지하기 때문에 2칸호 비율이 낮거나 전혀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총가호수에 대한 3칸호 비율이 지역 평균치를 상회하는 곳은 진주·동래·삼가·단성·진해·진남 등 6개군이고 낮은 곳은 함양·함안·기장·창원·김해의 5개군이다. 진해·단성·진남 3개군의 3칸호 비율은 60% 이상인 반면 김해·창원·함양군은 40% 정도에 그친다(그림 5). 면단위로 3칸호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진주군 용암면·일반성면·백곡면이고, 71~90%인 곳은 진주군 10개면, 동래군과 함안군 각각 3개면, 진해군과 함양군은 각각 2개면, 창원군·진남군·삼가군은 1개면씩이다. 그리고 3칸호 비율이 10% 미만인 면도 18개소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함양군과 삼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20호 이상의 마을 가운데 3칸호 비율에 따라 제

1급(91~100%), 제2급(81~90%), 제3급(71~80%), 제4급(61~70%), 제5급(51~60%)으로 나누고 군별로 분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급에 해당되는 마을 수는 진주군 11개동, 단성군 10개동, 동래군·진해군 각 9개동, 창원군·참안군·진남군 각 4개동, 김해군 3개동, 함양군 2개동, 기장군·삼가군 각 1개동으로 총 58개이다. 이 마을들 중 창원군 서삼면 중성동(92호/93호),

진해군 동면 서읍동(62/62), 동래군 동평면 범일동(67/68), 단성군 원당면 입석동(59/59) 등은 규모가 큰 3칸호 마을들이다. 제2급의 마을은 진주군 18개동, 동래군 9개동, 창원군 6개동, 진남군·함양군 각 4개동, 함안군 3개동, 진해군·단성군 각 2개동, 김해군·기장군 각 1개동으로 총 50개동이다. 제3급은 107개동, 제4급은 126개동, 제5급은 155개동이다.

3칸호의 수가 100호를 넘는 大村은 동래군 사중면 초량동(130호/202호)과 동평면 구관동(108/134)이고, 80~100호인 마을은 창원군 서삼면 중성동(92/93), 함안군 상리면 호곡동(93/9), 진주군 중앙면 삼동(88/124)과 진남군 광삼면 안정동(8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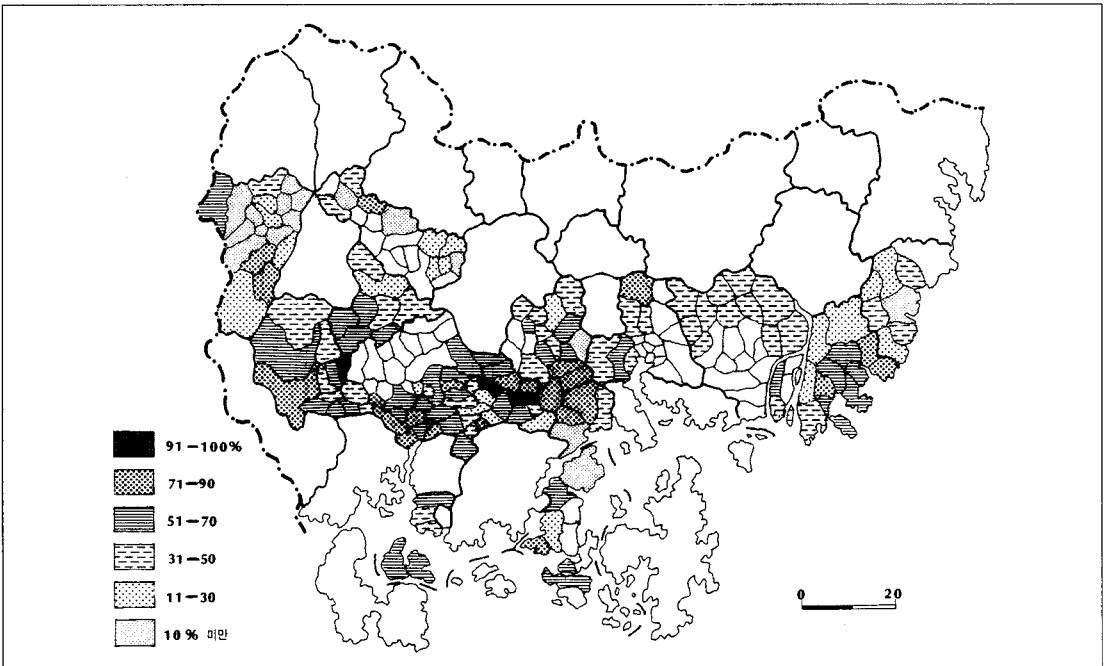


그림 5. 면별 3칸호의 비율

표 8. 가옥규모별 호수와 칸수

규모유형 칸별 호수와칸수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15칸	16칸	17칸	18칸	19칸	20칸
호수 (비율)	16,917 (90,39%)	24,000	3,458 (9,07%)	649	137	27	32 (0,43%)	12	9	4	5 (0,07%)	1	1	2	0	1	0	0	1
칸수 (비율)	33,834 (84,95%)	72,000	13,832 (13,7%)	3,245	822	189	256 (1,01%)	108	90	44	60 (0,23%)	13	14	30	0	17	0	0	20

자료 : 『경상남도 가호안』 18책.

등이다. 동래군 초량동은 조선시대에 倭館이 설치되었고 1876년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며 동평면 구관동은 부산진 일대의 중심취락으로 발달한 곳이다. 창원군 중성동은 조선후기에 이미 갯벌장으로 번영하다가 개항된 馬山浦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진주 중앙면 상리는 진주성 밖의 대촌이며 진남군 안정동은 수군진인 동시에 어촌이었다.

金鴻植은 조선 후기의 가옥을 규모에 따라 소농형(5칸 미만), 중농형(10칸 내외), 대농형(15칸 이상), 부유한 사대부의 저택(25칸 이상)으로 막연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소농형은 소작농 또는 외거노비의 가옥으로 안채와 갯간 및 측간을 갖춘 결채로 구성되며, 중농형은 일부 소작농 가옥으로 안채와 아래채로, 대농형은 소수 자작농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金鴻植, 1993, 281). 그의 분류는 중부지방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앞에서 논한 『가호안』의 2~3칸집의 비율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상남도의 가옥 45,256호 가운데 90% 이상이 2~3칸호이며, 4칸호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8%에 달한다. 따라서 김홍식의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지역에는 중형, 대형가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농형 가옥의 규모를 10칸 내외로 본다면 그 범위는 6~14칸 정도에 달한 것인데 이정도 규모의 가옥으로 『가호안』에 수록된 집은 228호(0.5%)에 불과하며, 대농형의 범주에 드는 가옥은 4호 뿐이고, 부유한 사대부의 저택은 전무하다. 그는 또한 소농형 가옥을 노비 또는 소작농의 주거로 단정하였으나 단성군 배양동, 의령군 상정면의 호적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班家中에도 2~3칸호

가 허다하였고, 『가호안』의 1,627개동 가운데 동족촌으로 간주해도 무방한 마을이 최소한 35%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점에서 가옥의 규모만으로 소·중·대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金容變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는 중부지방 量案의 家戶蘭 분석을 통하여 소유농자 7결 이상인 농민중에 2칸초가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결 미만의 농지소유자가 瓦屋 25칸·草屋 10칸으로 이루어진 저택을 보유하고, 심지어 농토가 없는 자가 13칸집에 거주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金容變, 1984, 372).

2~3칸호의 비율이 90%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화기 경상남도 가옥들 대부분이 외거노비 또는 소작농의 주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택리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 '경상우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부자가 많다.' '진주는 지리산 동쪽에 있는 큰 도읍이며(중략) 토지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강산의 경치가 좋아 사대부들은 富를 자랑하고 주택과 정자 꾸미기를 좋아한다.'<sup>28)</sup> 고 하여 경상우도 주민의 생활이 결코 곤궁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林學成은 丹城을 비롯한 경상남도 서부의 궁벽한 山郡조차 인물이 매우 성하였는데 이는 조선중기 三嘉·晋州에 거주하였던 南冥 趙植의 영향이 커서 그의 門人과 私淑이 많았던데서 연유한다고 하였다(林學成, 2000, 5-6). 그런데 지리산지의 계곡들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기후가 따뜻하여 택리지에서 말하는 이른바 溪居의 適地가 많아 임진왜란 이후 실촌된 마을들이 적지 않았다(丁致榮, 1999, 271-272). 조선시대의 토지등급분류에서도 경상우도는 대부분 上의상에 속하였으며<sup>29)</sup> 진주일대는 성주·남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가옥규모가 유난히 작았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조사자가 의도적으로 가옥의 규모를 축소했거나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신영훈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남 의령군 상정면의 조균호 씨 집은 建陽 2년(1897)의 호구조사표에 草家三間으로 기록된 고가로, -자형 안채 외에도 -자형 사랑채 등 4동의 부속채를 가지고 있다. 안채만을 보더라도 4칸 또는 4칸반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3칸이라 한 이유는 부엌을 제외한 안방, 건넌방, 대청 등 주거공간 위주의 계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申榮勳, 1987, 67-68).

『가호안』에 등재된 45, 256호의 칸수 총계(124, 574칸)를 산출한 후 가옥규모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3칸과 4칸, 5칸과 6칸, 8칸과 9칸, 12칸과 13칸 사이에서 급변점이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2~3칸을 소형가옥, 4~5칸을 중소형 가옥, 6~8칸을 중형 가옥, 9~12칸을 중대형가옥, 13~20칸을 대형가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형가옥의 수는 총가호의 90%를 상회하나 총칸수 비율은 84.95%로 낮아진다. 중소형가옥의 총칸수 비율은 13.7%, 중형의 그것은 1.01%, 중대형은 0.23%, 대형은 0.11%로 나타난다(표 8). 중형 이상 가옥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형별 조화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칸별 호수의 비율보다 칸의 비율이 소형은 약 5% 낮아지는 반면 중소형은 약 4%, 중형은 2배, 중대형과 대형은 약 3배로 높아진다. 중형 이상의 가옥은 호수나 칸수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율이 극히 낮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동래군 읍내면과 동평면에 집중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7~12칸 가옥의 집중도는 70%에 달하는 바(표 9), 이들 면은 가호안 조사 당시 부산 개항장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상업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중대형 가옥의 증가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가옥 호수의 49.6%, 칸수의 50.8%는 동래군 3개면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가옥은 진주군의 대곡·하용봉·중안·축동 등 4개면, 함양군의 백전·상리·안도·병곡면 등 4개면, 단성군의 군내·오동·신등 등 3개면, 삼가군 옥계면, 진남군 서부면 등지에 분포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각 군의 읍, 시장, 포구 등지에 분포하였으므로 동래군 외의 중형이상 가옥중 상당수는 비농가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학계에서는 조선후기부터 건축양식의 변화가 일어나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경향이 나타나 지방의 권문세가는 물론 중농의 살림집 역시 규모가 커지고 평면형태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金鴻植, 1993, 281). 즉 조선후기에 이르러 봉건적 신분질서가 약화되고 농업생산을 통해 富를 축적한 일부 농민들이 중농 또는 부농계층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19세기말~개화기에는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경제력만 따르면 누구나 상류층 주택의 부분적 요소를 추가하여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金鴻植, 1995, 281). 그러나 『가호안』 분석결과를 보건대 건축학계의 가설은 개화기 경상남도의 주거실태 설명에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오늘날 경상남도에는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와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등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대형 古家들이 남아있다. 속칭 99칸이라 일컫는 개평리의 하동鄭氏고택은 1570년대에 건축된 대저택이다. 이 건물외에도 개평리에는 규모가 큰 고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호안에는 개평리와 남사리의 고가들 대부분이 누락 또는 축소 보고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중·대형 가

표 9. 중·대형 가옥의 분포

지역 \ 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호수(칸)
동래군 읍내면	36	20	12	3	1	1	2		1							76호(538)
동평면	10	4	12	4	3	2	2					1				38호(313)
사중면	2	1														3호(19)
경남 기타군	89	4	8	5	5	1	1	1	1	2	0	1	0	0	1	119호(838)
계	137	29	32	12	9	4	5	1	2	2	0	2	0	0	1	236호(1708)

자료 : 『가호안』 18책.

옥의 약 30%가 瓦家인데 특히 13칸 이상의 대형가옥은 대부분이 와가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이전까지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마을 배후의 산봉우리를 닮은 초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초가는 가난의 상징이며 기와집은 부유한 자,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의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星湖는 '백성은 짚으로 지붕을 짓지만 10년이 지나면 기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 짚은 우마의 사료가 되므로 초가 이영을 이으면 이중의 손해를 본다. 초가는 온 마을이 화재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기와로 지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서 '... 반드시 지붕에 기와를 덮어야 하지만 시골 살림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礮溪가 각 고을에 瓦局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의 말에 주민이 기와 만드는 계를 만들면 십 수년만에 한 마을이 모두 기와집이 될 것이다. 만일 토목작업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와국을 설치하여 기와를 굽고 백성에게 무역을 하게 되면 원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백성을 거느리는 방법은 함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함이 중요하니 이미 기와집이 있으면 곧 자리잡고 사는 한 시초가 되므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sup>30)</sup>'고 하였다. 일제시대 중반의 기록에도 '다수의 종속소작인을 가진 지주는 문벌가인 소위 양반토호의 부류로서 그 취락형태는 기와로 된 호화롭고 큰 지주의 家宅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초가의 群居의 居住를 이룬다(小野寺二郎, 1932, 819)'고 하여 기와집은 한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묘사되어 있다.

기와집이 부유한 자의 주거임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건축자재, 공법, 가옥의 구조와 규모, 칸의 배치, 가옥의 가격 등 여러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와가는 잘 다듬은 재목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기둥·대들보·서까래등은 무거운 지붕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재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와가는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세우고 횡으로 중보를 놓은후 중보의 중앙에 대공을 놓는 5량구조, 대들보 위에 중보와 상중보를 놓은 7량구조의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2,3층의 보와 그밖의 대공, 기둥, 서까래, 그리고 무거운 기와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가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대목들에 의해 설계,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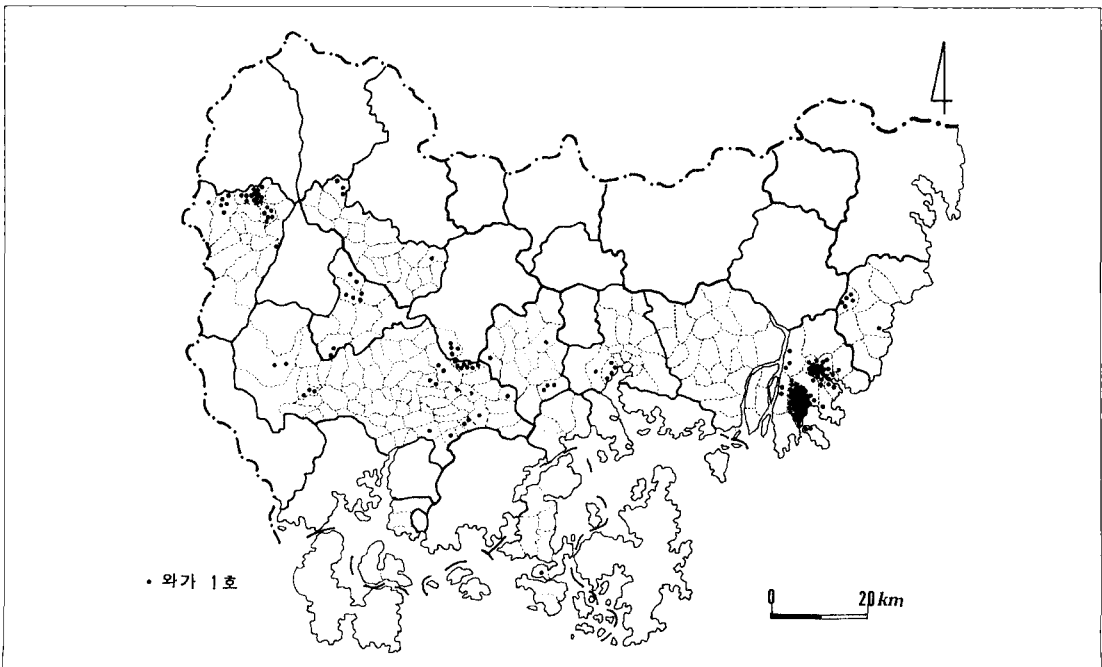


그림 6. 와가의 분포

20세기초 진주와 부산의 가옥 매매가를 보면 진주는 초가 3칸 50원, 5칸 80원, 10칸 150원이고 부산은 3칸 150원, 5칸 230원, 10칸 450원이었다. 와가는 진주의 경우 3칸 160원, 5칸 200원, 10칸 300원이고, 부산은 3칸 180원, 5칸 300원, 10칸 550원이었다. 소형가옥의 경우 와가가 초가보다 진주는 3배, 부산은 1.2배 고가였다.<sup>31)</sup> 그러므로 와가의 소유자는 초가의 거주자에 비해 직업, 신분, 경제력, 생활수준, 생활양식의 면에서 볼 때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며, 와가의 존재는 어느 마을에서나 두드러졌다.

『가호안』에 수록된 瓦家는 총165호에 칸수는 997칸이며 호당 평균규모는 5.99칸이다. 와가 중에도 소형에 속하는 3칸호가 13호(12.7%)나 되고 중 소형 가옥은 약 57.0%에 달하며, 중형가옥은 21.2%, 중대형가옥은 10.3%, 대형가옥은 3.6%를 차지한다. 와가는 경상남도 158개군 가운데 진주군 10개면, 동래군 8개면, 함양군 5개면, 함안군과 단성군 각 3개면, 기장군과 삼가군 각 2개면, 진남군·창원군<sup>32)</sup> 각 1개면 등 35개면에만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김해군과 진해군에는 전무하다(그림 6).

와가가 많이 분포하는 면은 동래군 동평면, 읍내

면, 사중면인 바, 이들 3개면의 와가수는 80호(507칸)이다. 동래군 전체의 와가 수는 94호에 총칸수는 546칸으로 호수는 경남 전체의 약 57%, 칸수는 55.2%를 점유하여 사실상 경남 11개군 와가의 과반수가 동래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래군 외에는 함양군 덕곡면과 모간면, 진주군 하용봉면에 와가가 많은 편이다(표 10), 그러나 瓦家의 수는 연구지역 호수의 0.36%에 불과하고 이를 칸수로 환산하여 보아도 그 비율이 0.79%에 불과하므로 경상남도의 주거에서 와가의 비중이 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와가의 분포가 탁월했던 곳은 대부분 상업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즉 농촌의 지주층보다 客主, 旅閣 등 부유한 상인계층들의 와가 보유가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에서 상업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은 창원군 서삼면(42.3%)이고 동래군 동평면(38.0%), 진주군 대안면(34.2%), 진남군 서면(28%), 진주군 중안면(20.3%), 진남군 동면(18.9%), 함양군 원수면(18.6%), 진주군 하용봉면(17.4%) 등의 순으로 상업호 비율이 높았다. 그밖에 진주군 모태면, 단성군 군내면·오동면, 삼가군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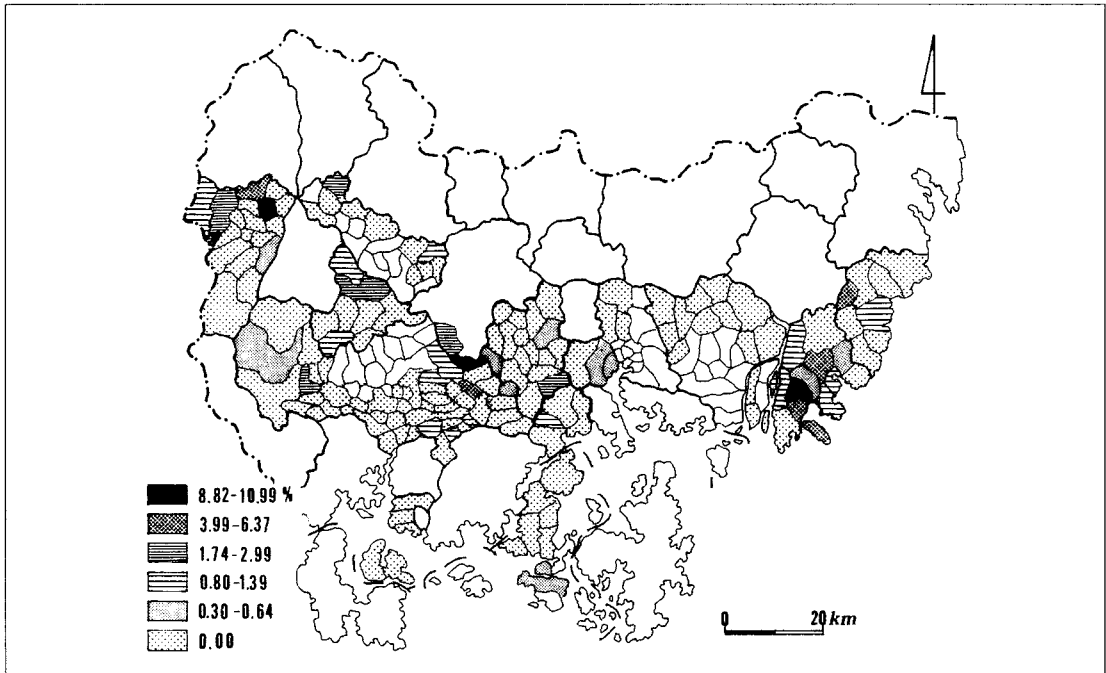


그림 7. 면별 가옥의 총칸수에서 와가 칸수가 차지하는 비율



표 10. 군·면별 와가의 분포

지역	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진주군	대어면	1		1																2호 (8칸)
	대곡면				1	1														2호 (13칸)
	하용봉면			3	1		1		1		1			2						9호 (81칸)
	용암면								1											1호 (10칸)
	양전면		1																	1호 (4칸)
	개천면		2																	2호 (8칸)
	금동어면			1																1호 (5칸)
	지공면		1																	1호 (4칸)
	종화면		1	2																3호 (14칸)
	시천면		2																	2호 (8칸)
함양군	백전면																	1		1호 (20칸)
	병곡면	2	3																	5호 (18칸)
	덕곡면	4	7	3																14호 (55칸)
	모간면	1				2		1	2											6호 (46칸)
	유등면		1																	1호 (4칸)
함안군	안인면			1																1호 (5칸)
	산죽면			1																1호 (5칸)
	병곡면			3																3호 (15칸)
동래군	읍내면	3	4	8		4	6	1		1			1							28호 (175칸)
	서하면			1																1호 (5칸)
	사상면		2																	2호 (8칸)
	사중면		12	6	2	1														21호 (97칸)
	동평면		3	6	4	1	7	4	3	1	1					1				31호 (235칸)
	남하면			1																1호 (5칸)
	남상면	1	1	2																4호 (17칸)
	동상면		1																	1호 (4칸)
기장군	동면											1								1호 (13칸)
	상서면		1	2			1													4호 (32칸)
삼가군	백동면			1																1호 (5칸)
	옥계면				2		1													3호 (20칸)
단성군	원당면					1														1호 (7칸)
	신등면	1		3																4호 (18칸)
	법물면		1	1																2호 (9칸)
진남군	서부면			1																1호 (5칸)
창원군	서삼면		1	3																4호 (19칸)
9개군	35개면	13	44	50	10	10	16	6	7	2	2	1	1	2	0	1	0	0	1	166호 (997칸)

자료, 『경상남도가호안』.

내면·옥계면, 함양군 덕곡면·유등면, 기장군 읍내면·동면, 함안군 병곡면 등도 상업호가 5~15%에 달하였다(이현창, 1997, 142-153).

가옥의 총칸수에서 와가의 칸수비율을 면별로 산출하고 급변점을 경계로 158개면을 6등분 해본

결과 최상급(8.82~10.99%)에 해당되는 곳은 동래군 동평면, 진주군 하용봉면, 함양군 모간면 등 3개면이다. 제2급(3.00~6.37%)에 속하는 면은 동래군 2개면, 기장군 1개면, 진주군 1개면, 함양군 1개면 등 5개면이며 123개면은 와가가 전무하다(그림 7).

와가의 수가 가장 많은 동래군의 경우를 보면 동평면 범2동의 12호(67칸)를 필두로 구관동 6호(40칸)·좌천 1동 5호(52칸)·범1동 4호(34칸)·좌천 2동 2호(19칸)의 와옥이 분포하였다. 읍내면 범어동 7호(33칸)·괴정동 4호(31칸)·교동 4호(22칸), 사중면 초량동 14호(34칸)·영주동 7호(33칸) 등지에도 다수의 와옥이 있었다. 69호의 와가중 초가 부속채를 가진 집은 4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초가를 합쳐 20칸이 넘는 집은 없다. 인천에 앞서 개항하였고 對日貿易의 본거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物商客主들이 집중되었던 도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래는 20~60칸의 대규모 와가들이 7~8호나 분포했던 인천에 비해 와가의 수와 규모가 열등하였다.<sup>33)</sup>

진주군의 와가분포는 하용봉면, 대곡면, 대여면 등 10개 면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하용봉면의 승산동 7호(65칸)·임내동 2호(16칸), 대곡면 마진 2호(13칸), 기타 2호(8칸)가 등재되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곳은 勝山洞이다. 『晋州邑誌』(1895년 간행) 各里條에 ‘東勝山南大江土地卑下多被水害’라 하여 이 마을의 토지가 척박하고 수해가 잦은 곳에 입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남강수로의 요지로 수운이 편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마을 가옥의 10%가 와옥이고 칸 수로는 총 가옥 칸수의 22%를 차지하여 와가의 비율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데, 70호중 48호가 김해 許氏, 16호가 능성 具氏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矢川面 絲洞은 南冥 曹植의 후손들이 살아온 동족촌임에도 불구하고 남명이 거주했던 山川齋와 또 한 채의 4칸 와가가 있었을 뿐이다.<sup>34)</sup>

함양군 하동 鄭氏 동족촌인 덕곡면 하개동, 모간면 효리동·서평동, 병곡면 우동<sup>35)</sup>, 백전면 서백촌 등지에 와가가 집중되어 있다. 덕곡면 하개동은 3칸집(4호), 4칸집(7호), 5칸집(3호)의 와가 14호가 분포하는 마을로 鄭汝昌(1450~1504) 선생의 고택이 있다.

이 저택은 1570년대에 정여창 선생 후손에 의해 건축되었으나 治財에 성공한 후손들이 여러차례 증축하여 오늘날 안채, 익랑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 곳간채, 사랑채, 행랑채 등 여러 채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신영훈, 2000, 51-54).<sup>36)</sup> 그런데 『가호안』에는 하개동에 5칸 이상의 가옥이 전혀 나타

나지 않는 바, 이는 누락 또는 축소 기록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하개동 인근인 모간면 효리동 역시 하동정씨 동족촌으로 7칸호(2호), 9칸호(1호), 10칸호(2호)의 와가들이 분포하였다. 백전면 서백촌에는 20칸 와가 한 채가 있을 뿐이지만 이 가옥이 『가호안』에 등재된 가옥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 2) 戶의 構造와 住居의 여건

조선시대 ‘戶’의 구조를 막연하게 대가족 구조로 일반화했던 과거의 학설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사람들은 사회학자, 경제사학자, 역사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양안과 호적표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극소수 양반지주호만이 대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가호는 소가족호였음을 밝혔다.

가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일제시대부터 일어났으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부터이다. 통일신라기 帳籍의 분석을 통한 가족구성에 대한 연구<sup>37)</sup>, 고려말 호적을 분석하여 호당 가구원 수를 파악한 연구(崔弘基, 1975), 조선시대의 가구원 수를 논한 연구(崔在錫, 1983) 등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요 연구주제는 가호의 구조와 가구원의 수에 관한 논의이다. 이태진은 하나의 自然家戶를 중심으로 다른 ‘家戶’ 또는 ‘人’을 채우는 것이 孔烟 편성의 방식이었으며 ‘烟’이 바로 자연가호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같은 자연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나의 호가 구성된다는 自然家說과 동일한 자연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호에 편제되기도 하고 여러개의 자연가가 모여 하나의 호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편제호설을 제기하였다(李泰鎮, 1986, 50-53). 그런데 만일 부모와 혼인한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分戶되어 부모는 主戶가 되었다. 그러나 분호는 대체로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졌다(李榮薰, 1988, 21).

『경국대전』에 나오는 ‘率居子女某某年甲 奴婢雇工某某年甲’<sup>38)</sup>이라는 글귀가 보이는 바, 이는 주호의 자녀 외에도 노비와 고용인 등 예속인까지 호의 구성원에 포함됨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을 갖춘 부농이나 부유한 사대부가 아니면 대가족을 먹여살리고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

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18세기 부농의 기준을 보유농지 1結 이상의 농가로 규정하고 이러한 수준의 농가비율이 극히 낮았다는 설(金容燮, 1970, 147)과 호적에 등재된 元戶 가운데 소유농지가 전무하거나 영세농이었던 농가가 적지 않으며 동일호에 편제된 가족들조차 실제로는 다른 자연가에 거주한 예가 또한 많아 경상도의 경우 4~5인 호가 약 51.7%, 3~4인 호가 약 35.4%에 달했다는 연구결과(李榮薰, 1988, 251)가 이미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김건태는 조선 후기의 호는 기본적으로 자연가 즉 독립된 농가세대를 단위로 하지만 자작농으로 성장하지 못한 예속인은 하나의 농가세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上典의 호에 편입된다고 하였다(김건태, 2003, 267-268). 상전가는 호를 대표하는 주호로서 각종 賦稅를 납부하는 책임자였던 반면에 상전의 가택에 거주하는 소작인, 農幕直 등 예속인은 '挾戶'를 구성하며, 이들은 부세의 부담능력이 없는 세대로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주호와 협호사이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李榮薰, 1988, 260). 甲午改革 이후 사회신분제도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종속관계는 어느정도 관행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中鮮以南의 종속소작인은 주로 행랑인·土房人·次戶 등으로 불리며, 지주의 居宅 일부에

거주한다. 그밖에 지주의 거택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들을 살게 하고 소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지주의 종속소작인 수는 보통 1호, 드물게는 2,3호인 경우도 있다. 지주는 독립된 가옥을 지급하는 경우 소작인의 수는 적게는 1,2호 내지 수호에 불과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20~30호에서 70~80호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sup>39)</sup>

『가호안』에는 가옥과 대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예가 많은데 특히 한 지주의 토지에 적게는 12명, 많게는 100여명의 성명이 올라있는 점은<sup>40)</sup> 지주와 고용자의 종속관계를 설명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대지주 저택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소위 戶底집들이 둘러싸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金容燮, 1990, 242). 호저집은 대부분 2칸 내지 3칸의 작은 초가였는데 가옥의 소유주는 물론 주호인 지주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옥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분상으로는 주호로부터 독립하였을지라도 경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가옥의 규모는 호의 구조 및 가족 1인당 점유칸수, 즉 가옥의 크기에 따른 주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가호안』에는 가옥의 칸수와 草·瓦家の 구분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1인당 점유공간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구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연구지역 내에서 가호안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인구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단성군 남면 원당리 뿐이다. 그러므로 진주군 대곡면과 인접하는 의령군 상정면과 경북 안동군 남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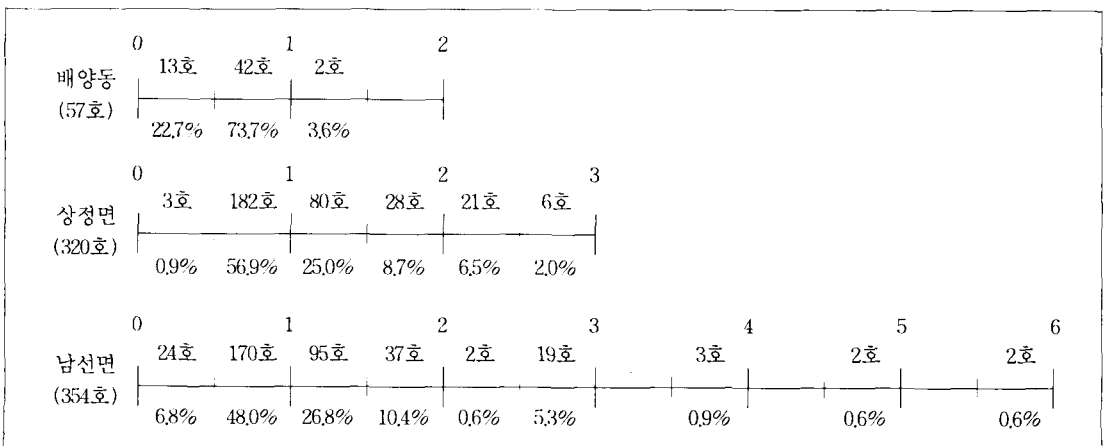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1인당 점유칸수별 비율

표 11. 안방의 규모

(1칸 기준)

마을	와 가			초 가		
	短邊(m)	長邊(m)	면적(m <sup>2</sup> )	短邊(m)	長邊(m)	면적(m <sup>2</sup> )
경주 양동	2.70	3.83	10.34	2.45	3.15	7.715
의인 섬마을	2.60	4.28	11.128	2.76	3.37	9.3012
안동 하회	2.80	4.53	12.684	2.52	3.26	8.2152

자료 : 李鍾弼 외, 1983, 29.

호적표를 비교하여 농촌가옥의 1인당 점유칸수를 유추해보기로 한다. 다만 의령군과 안동군의 호적표가 단성군의 그것보다 5~7년 앞서 작성되었고 호수 및 인구수도 5~6배 많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지역이 모두 순농촌이고 인구가동이 적은 시대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가구원당 점유 칸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개화기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 주민의 점유칸수가 농촌 주민의 그것에 비해 다소 넓다. 즉 1인당 점유면적이 서울 2.3칸, 인천 2.0칸<sup>41)</sup>, 개성 1.9칸이었던데(吉田光男, 1993, 94)비해 단성군 남면 배양동은 0.68칸, 의령군 상정면은 1.08칸, 안동군 남선면은 1.14칸에 불과하여<sup>42)</sup> 영남지방 농촌주민들이 중부지방 도시주민들에 비해 1/3~1/2의 협소한 공간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점유칸수는 도시이든 농촌이든 간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인천 개항장의 내국인 거주지 중에서도 부유한 상인과 객주가 많이 거주했던 外洞은 1인당 점유칸수가 2.23칸인 반면에 소상인과 영락한 양반층이 많았던 畚洞은 1.52칸에 불과하였다.<sup>43)</sup> 단성군 배양동은 주민의 96.4%가 한칸 미만의 좁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친 반면 상정면은 57.8%, 남선면은 54.8%로 배양동보다 현저히 높다. 즉 안동군 남선면의 주거사정이 3개 지구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다. 특히 단성군 배양동에는 무주택 1호, 9인 거주 2칸호가 두 집이나 되어 1인당 0.25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20인(총 3호)에 달한다(그림 8).

칸(間)은 네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건물의 크기를 세는 단위로 이용하지만, 한 칸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한 瓦·草家에 따라 차

이가 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해보면 와가의 방 크기가 초가의 그것보다 다소 큰데, 안방을 기준으로 할때 초가는 약 7.7m<sup>2</sup>~9.3m<sup>2</sup>, 와가는 약 10.3m<sup>2</sup>~12.7m<sup>2</sup>이다(표 11). 3개 마을 가옥 안방 넓이의 평균 면적은 초가가 약 8.41m<sup>2</sup>이고 와가는 약 11.38m<sup>2</sup>로 와가가 초가보다 1.35배 정도 더 넓다. 초가의 안방은 의인 섬마을이 가장 넓고 良洞이 가장 좁은 반면 기와집의 안방은 河回가 가장 넓고 양동이 가장 좁다(李鍾弼 외, 1983, 33-34). 이처럼 한 칸의 넓이는 절대면적이 아니고 초·와가에 따라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점유칸수만으로 주거여건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의 주거사정이 빈곤 계층에 비해 대체로 양호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배양동을 비롯한 영남지방의 1인당 점유칸수를 참조하여 『가호안』에 나타난 2칸호 및 3칸호의 비율을 고찰해 보면 대 20세기초 경상남도의 戶當 인구는 4명 내외의 소가족형 가구가 대부분이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거나 고용인까지 거느린 대가족 세대는 매우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방 한칸, 부엌 한칸으로 이루어진 초가 2칸호의 거주자 수가 2인이면 1인당 점유공간은 4.2m<sup>2</sup>(0.5칸), 3인이면 2.77m<sup>2</sup>, 4인이면 2.1m<sup>2</sup>가 된다. 방 두칸, 부엌 한칸의 3칸호의 경우 1인당 점유공간은 2인이면 8.4m<sup>2</sup>(1칸), 3인이면 5.63m<sup>2</sup>, 4인이면 4.2m<sup>2</sup> 정도로 2칸호보다 다소 여유가 있다. 그러나 장롱, 반다지 등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그 면적은 감소된다. 단성군 배양동과 의령군 삼정면의 경우를 보면 전자는 3대가 거주하는 9인 이상 대가족호가 4호인데 그중 2칸호가 2호이고 3칸호 1호, 6칸호 1호이다. 후자는 3대가 거주하는 세대수는 십수호에 달하나 9인 이상 가호는 초가 7칸·와가 6칸으로 이루어진 賣均

護씨택 뿐이다. 다시 말하면 상정면에는 소형가옥에 대가족이 거주하는 예가 없다.

와가는 칸의 절대면적이 다소 넓기 때문에 1인당 점유공간도 여유가 있다. 가옥의 최소단위는 3칸이지만 상당수의 와가는 초가 별채를 갖고 있다. 방 두칸, 부엌 1칸의 3칸 와옥에서 1인당 점유공간은 2인 가호인 경우 약 11.4m<sup>2</sup>, 3인 가호는 약 8.5m<sup>2</sup>, 4인 가호는 약 7.6m<sup>2</sup>에 달한다. 따라서 와가는 초가보다 더 많은 가구원을 수용할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慶尙南道家戶案』은 甲午改革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측량사업의 결과물의 하나이다. 量地衙門에 이어 地契衙門이 계승, 완수한 토지측량사업에서는 전답뿐 아니라 산림·川澤·家屋까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근대화를 국가경영의 목표로 삼은 대한제국이 폭넓은 稅收源 확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家戶의 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듯 하나 全道의 1/3 이상 자료가 현전하는 곳은 경상남도 뿐이다.

경상남도가호안은 진주군을 비롯한 서부 경남 4개군, 김해군 등 낙동강 중·하류 평야지대의 3개군, 동래군 등 동부해안 2개군, 남해안의 2개군 등 11개 군의 자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에 등재된 面의 수는 158개, 洞의 수는 1,627개이며 총 45,256호의 가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1904년 당시 경상남도의 행정중심지였으며 행정구역이 도내에서 가장 광대했던 晋州郡의 面數는 가호안의 약 35%, 동의 수는 약 29%, 가호의 수는 약 27%를 차지하며, 중간 규모의 咸安郡에 비해 面의 수는 약 3배, 동의 수는 약 2.3배, 호의 수는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군간의 격차가 크다.

가호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정보는 지역별 家座(대지)의 토지등급, 가좌의 소유관계, 지역별 및 칸(間)별 호수, 지역별 草·瓦家の 분포 등이며, 그 밖에 취락의 분포와 규모, 취락의 주요 姓氏分布, 취락의 기능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지와 가옥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가호안이 작성된 1904년은 부산과 마산 등 개항장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외국문명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전통주거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대지는 田에 준하여 肥瘠度에 따라 6등분하고 家座의 단위는 家座로 표기하였는데 가좌의 규모는 절대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호마다 대지의 규모가 달랐다. 각 가좌의 절대 면적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자는 東萊郡 沙下面 농촌의 가좌면적을 산출하여 호당 평균 대지면적이 약 210m<sup>2</sup>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 농가의 대지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총가호의 약 20%는 賃借地에 집을 짓고 거주했는데, 특히 咸安君, 金海郡, 晋州郡 등 평야지대의 임차율이 높은 반면 機張郡, 鎭海郡 등 해안지방과 丹城郡·三嘉郡·咸陽郡 등 山郡은 자기가좌의 소유비율이 높았다.

임차가좌는 사유지가 약 68%, 국공유지가 약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사유지, 즉 지주전의 임차율은 함안군(97.1%)을 필두로 동래군, 김해군이 높고, 진주군, 기장군, 단성군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국공유지는 牧場田과 驛屯田이 각각 38.1%를 차지하여 전체 국공유지의 2/3를 상회하고, 나머지는 鎭營田, 중앙 및 지방 官屯田, 궁방전, 洞中 및 宗中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전은 대부분이 진주군 越境地인 창선도에, 역둔전은 진주군 소천면과 함양군 사근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司圃屯은 지리산 동록의 진주군에, 수영둔전은 통영 인근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다. 궁방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김해의 龍洞宮田은 鳴旨島 鹽場의 소속대지였다.

건축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가옥을 규모에 따라 소농형, 중농형, 대농형, 사대부의 저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기준이 경상남도 11개 군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개화기의 경상남도 가옥의 규모는 예상 밖으로 영세하기 때문이다. 19세기말 경기도와 충청남도 농촌가옥의 평균 규모가 4칸 내외였는데 비해 경상남도의 그것은 2.75칸에 불과하였다. 전체 가옥의 약 53%가 3칸초, 약 37.4%가 2칸호이고 4칸 이상의 가옥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2~3칸호가 전체 가옥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가옥의 규모는 동래군 읍내면의 평균 3.75칸으로 부터 함안군 외대산면의 2.17칸에 이르기까지 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평야지대는 규모가 작은 반면 山郡과 동부해안의 가옥들은 다소 큰 편이다. 면 단위로 볼 때 2칸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함안군 외대산면 뿐이고 500~1300호의 면 중에 2칸호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면은 10여 곳이 넘는다. 3칸호는 서부 경남의 단성군, 남해안의 진해군과 진남군에서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지역은 2칸호 비율이 낮은 곳이기도 하다. 반면에 김해·창원등 평야지대의 군은 3칸호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면 단위로 볼 때 진주군 3개면은 3칸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71~90%의 비율을 보이는 면도 16개소에 달한다. 반면에 삼가군·함양군 등 서부 경남의 18개면은 3칸호 비율이 10%에도 못미친다.

건축학·민속학 분야에서 소위 ‘가랍집’, ‘호저집’, ‘막살이집’으로 호칭하는 2~3칸집을 외거노비 또는 소작인의 주거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8도 가운데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였으며 명문사대부가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일컬던 경상남도 주민의 90% 이상이 2~3칸집에 거주했다고 하여 노비 또는 소작인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와가의 수가 166체에 불과하며 20칸 이상의 저택이 전무한 점 역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점은 가옥 및 인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9세기말~20세기초의 호적표를 발굴, 분석하여 추후에 밝힐 필요를 느낀다.

이 지역의 1인당 점유칸수 역시 중부지방은 물론 경상좌도의 안동에 비하여 1/3 내지 1/2의 수준에 불과하다. 한칸의 실면적은 초가가 와가의 70% 내외로 협소한 바, 이는 와가의 비율이 극히 낮았던 경상남도의 주거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방의 1인당 주거점유공간은 2칸 2인 가족의 경우 약 8.4m<sup>2</sup>, 3인 가족의 경우 5.63m<sup>2</sup> 이고 부엌을 제외하면 2인호는 4.2m<sup>2</sup>, 3인호는 2.77m<sup>2</sup>에 불과하다. 3칸집의 경우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이러한 영세규모의 가옥에 3대가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 1900년대초 경상남도의 가호는 4인 내외의 소가족호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 註

- 1) 光武8年(1904)에 작성된 『慶尙南道家戶案』은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전하는 것은 작성 당시 경남 31개군 가운데 11개군뿐이다.
- 2) 政府財政顧問本部, 1906, 『韓國戶口表』.
- 3) 『민적통계표』 1909년 실시한 민족조사자료를 內部警務局에서 정리하였다. 호수·성별·인구·11종으로 분류된 직업통계 등이 면단위까지 제시된 이 자료는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에 의해 분석, 정리, 출간되었다(1977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4) 이 자료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최영준, 1999, “경상남도의 가옥,”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1-420.
- 5) 1895~1909년간 일본군 육군참모부 소속 첩 보장교들에게 의해 측량된 1:50,000지형도로 『가호안』에 수록된 마을 중 다수가 표기되어 있다(南榮佑編, 1997, 舊韓末韓半島地形圖, 成地文化社).
- 6) 『官報』 光武3年4月29日
- 7) 『去來在案』 「土地測量에 關한 事件」(農商 工部去來在摺)3, 光武2年6月22日
- 8) 『大典會通』 券2, 戶典, 給造家地增條
- 9) 상계서, 戶典, 田宅條
- 10) 상계서, 戶典, 量田條
- 11) 『官報』 號外 「度量衡規則」, 1912年 10月 21日
- 12) 내수사 장토는 김해군 진례면(1353. 8 두락), 가락면(976.7두락), 활천면(861.5두락)등지에 분포하였다
- 13) 『朝鮮總督府統計年譜』, 1911
- 14) 『慶尙南道東萊郡沙下面量案』(奎18111~1), 『慶尙南道東萊郡沙下面量案』(奎18111~2)
- 15) 동래 범어사 소유대저 5座를 가리킨다.
- 16) 司圃署는 圃場을 관장하고 果木과 草果를 식재하던 중앙의 관부로 提調(1명), 別提(2명) 외에 12명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經世遺表』 권1, 地官之曹 제2教官之屬).
- 17) 『嶺南驛誌』 上卷의 「自如道誌」와 「召村道誌」, 下卷의 「沙斤道誌」와 「黃山驛誌成冊」
- 18) 『慶尙道邑誌』 제10책 「金海府邑誌」山川條
- 19) 『度支志』 권8 版籍司煮塩事業條
- 20) 『晉州郡家戶案』
- 21) 『星湖僿說』 권5, 人事門 篇8 瓦屋
- 22) 『磻溪隨錄』 권25, 續篇上山舍
- 23) 『山林經濟』 권1 卜居條에 ‘夫士不得於朝 則山林而已矣…不能卜居山郎於岡阜重複 林木幽翳處 闢地類畝 築室三楹…」이라 하였다. 三楹이란 세 칸 집을 의미한다.
- 24) 『丹城郡家戶案』과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21, 朝鮮總督府刊)에 南面은 존재하지 않고 배양동은 元堂面 5개동 중의 하나이다.
- 25) 『慶尙南道丹城郡戶籍表』 南面元堂面培養洞 光武8年(1904)  
『慶尙南道宜寧郡上井面戶口調査表』 建陽2年(1897)  
『慶尙北道安東郡已劾式籍表』 第4·南先面, 光武3年(1899)
- 26) 표준편차는 0.74인데 정규분포에서 평균치-표준편차와

평균치+표준편차 사이에 전체면의 약 68%가 분포하므로 필자 임의로 표준편차의 약1/3인 0.25씩 차이를 두어 7단계로 구분하였다.

- 27) 『擇里志』八道總論 慶尙道條
- 28) 『擇里志』卜居總論, 生利條
- 29) 『世宗實錄』 권78, 19年7月丁酉條, 권82 20 年8月 己亥條 및 권102, 25年 癸丑條
- 30) 『星湖僿說』 권10, 人事門 瓦屋
- 31)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86, 朝鮮各地物價調查概要(下), 亞細亞文化社(영인본).
- 32) 昌原郡 西三面 西城洞의 瓦家 가운데 5칸집 3호는 日本人, 4칸집 1호는 淸國人 소유, 이밖에도 러시아인과 일본인들이 馬山으로 편입된 이 지역의 가옥들을 매입하고 있었다.
- 33) 『光武二年京畿仁川柵峴外洞戶籍臺帳』
- 34) 『慶尙南道晉州郡家戶案』 제5책
- 35)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덕곡면, 지내면, 모간면의 대부분과 백토면의 일부가 통합되어 池谷面이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朝鮮總督府,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748-749. 越智唯九(編),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624-625
- 36) 정여창의 후손들은 利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여창의 후손인 鄭近相은 親地地主 였다는 주장이 있고 보면 이 저택의 규모를 축소보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박병련·조강희, 1999, "경상남도의 성씨와 씨족," 慶尙南道의 鄉土文化(上), 정신문화연구원, 306)
- 37) 신라시대 帳籍의 분석을 통한 가족구성 연구물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李泰鎮, 1975, "新羅統一期の 村落支配와 孔烟一正倉院所藏의 村落文書의 재검토 -," 韓國史研究 25. 李鍾旭, 1980, "新羅帳籍을 통해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歷史學報 86
- 38) 『經國大典』 禮典, 戶口式
- 39) 小野寺二郎, 1932, 朝鮮의 小作慣行(上卷), 朝鮮總督府殖産局農務課, 816-818
- 40) 『金海郡家戶案』을 보면 鳴旨面 眞木里의 地101좌 중 100좌는 金其杓의 소유로 되어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鹽業에 종사하였으며 2칸호가 59호, 3칸호는 40호, 4칸호는 2호였다. 그러나 지주의 가옥으로 볼만한 저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 41) 『京畿仁川港柵峴外洞戶籍臺帳』 光武2年
- 42) 1인당 점유칸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배양동 : 가옥칸수(89칸) 인구(131인) 상정면 : 가옥칸수(1006칸) 인구(932인) 남선면 : 가옥칸수(1405칸) 인구(1233인)
- 43) 外洞은 216호에 1,783명이 거주하였으며 호당 가옥규모는 9.24칸이었고 畚洞의 호당 가옥크기는 평균 4.6칸이었다. 『京畿仁川港柵峴外洞戶籍臺帳』 光武2年, 『京畿仁川港畚洞戶籍』 光武2年

## 文 獻

- 『去來存案』 光武2年(1898).
- 『京畿仁川港畚洞戶籍』 光武2年(1898).
- 『京畿仁川港柵峴外洞戶籍臺帳』 光武2年(1898).
- 『經世遺表』.
- 『經國大典』.
- 『慶尙南道家戶案』 晉州·咸陽·咸安·東萊·昌原·機張·三嘉·丹城·鎭海·鎭南·金海(奎17944~17954) 光武8年(1904).
- 『慶尙南道丹城郡戶籍表』 南面元堂里 光武8年(1904).
- 『慶尙南道東萊郡沙中面量案』(奎18111~1) 光武8年(1904).
- 『慶尙南道東萊郡沙下面量案』(奎18111~2) 光武8年(1904).
- 『慶尙南道宜寧郡上井面戶口調査表』 建陽2年(1897).
- 『慶尙道邑誌』.
- 『慶尙北道安東郡已亥式籍表』 4南先面 光武 3年(1899).
- 『官報』.
- 『大典會通』.
- 『磻溪隨錄』.
- 『山林經濟』.
- 『尙州郡各屯驛田畚畜定賭稅成冊』(奎17912).
- 『星湖僿說』.
- 『嶺南驛誌』.
- 『朝鮮後期地方地圖』 慶尙道.
- 『度支志』.
- 『韓國戶口表』.
- 『海東地圖』.
- 姜萬吉, 1984, 朝鮮時代 商工業史研究, 한길사.
- 김건태, 2003,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戶籍大帳의 編制方式," 戶籍大帳에 나타나는 사람들, 大東文化研究院.
- 金容變, 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Ⅰ) 一潮閣.
- 金容變, 1984, 朝鮮近代農業史研究(下) 一潮閣.
- 金容變, 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Ⅱ) 一潮閣.
- 金義煥, 1973, 釜山近代都市形成史研究 研文出版社, 부산.
- 金鴻植, 1992, 韓國의 民家, 한길사.
- 金鴻植, 1993, 民族建築論, 한길사.

- 南榮佑(編), 1997, 舊韓末韓半島地形圖, 成地文化社.
- 박병연·조강희, 1999, “경상남도의 성씨와 씨족,”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 韓國情神文化研.
- 申榮勳, 1983, 한국의 살림집 상, 悅話堂.
- 申榮勳, 1987, 韓屋의 造營, 匡祐堂.
- 申榮勳, 2000, 한옥의 향기, 대원사.
- 이영하, 1995, “대한제국기 토지조사 사업의 의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李榮薰, 1988, 朝鮮後期 社會經濟史, 한길사.
- 李鍾旭, 1980, “新羅帳籍을 통해,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歷史學報 86.
- 李泰鎮, 1975, “新羅統一期の 村落支配와 孔烟 -正倉院所藏의 村落文書의 재검토-,” 韓國史研究, 25.
- 李泰鎮, 1986,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 이헌창, 1997,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林學成, 2000, 17·18세기 丹城 ‘地域’ 住民의 身分變動에 관한 研究, 仁荷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丁致榮, 1999, 智異山地 定住化의 歷史地理的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崔永俊, 1999, “경상남도의 가옥,”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원규, 1995, “大韓帝國期 量田과 官契發給事業,”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 崔弘基, 1975,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洪升在, 1992, “朝鮮時代 禮的 次序體系와 建築의 配置構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2).
-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東京.
- 吉田光男, 1993, “戶籍から見た20世紀初頭ソウルの人と「家」,” 朝鮮學報, 147輯.
- 小野寺二郎, 1932, 朝鮮の小作慣行(上卷), 朝鮮總督府殖産局農務課.
- 越智財政顧問本部, 1906, 韓國戶口表.
- 朝鮮總督府, 1912, 舊韓國地方行政地域名稱一覽.
- 朝鮮總督府統計年譜, 1911.
- Roberts, B.K., 1996, *Landscapes of Settlement: Prehistory to the Present*, Routledge, London.

최초투고일 04. 03. 25

최종접수일 04. 06. 10